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충남 당진시 선정

- 양식업 분야 역량 향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탄소중립형 양식거점 단지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7일(월) ‘충청남도 당진시’를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충남 당진시 석문명 통정리 일원(부지면적 104,865㎡, 건축면적 27,590㎡)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Data) 기반의 첨단 양식기술을 적용·실증하고, 생산부터 유통·가공에 이르는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대규모 양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기술을 실제로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구축하고, 생산된 양식수산물을 가공·유통할 수 있는 배후부지도 함께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충청남도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냉수성 어종인 바다송어를 주력 품목으로 생산·연구할 계획이며, 인근 당진 LNG 생산기지에서 배출되는 냉해수와 냉매를 활용해 여름철 냉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탄소 중립형 스마트 양식거점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당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는 바다송어 양식기술 실증, 스마트양식 데이터(Data) 수집,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배후부지에는 수산물 가공·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Bio), 의료, 미용 관련 기업들도 유치하여 수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광역시(연어)를 첫 번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지로 선정한 이후 전라남도 신안군(새우), 강원도 강릉시·양양군(연어), 경북 포항시(연어), 제주도(넙치)를 차례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3월에는 부산광역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변화와 시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양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양식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류선형 (044-200-5630)
		담당자	사무관	정창균 (044-200-5635)

□ 사업개요

- (사업명/기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25~'28
- (최종목표) 스마트 양식 시범단지, 대량생산 단지, 가공·유통·수출,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집적화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 (사업방향) 지자체 주관으로 특화 모델을 기획·추진하고, 조성된 배후부지에는 민간투자 및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시너지 제고
- (사업내역) ①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 조성, ②배후부지 기반 구축
 - * ①총 사업비 300억 원/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 ②총 사업비 100억 원/ 국비 70억 원, 지방비 30억 원

□ 세부현황

- (사업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1244, 1255번지 일원
- (사업면적) 부지면적 104,865㎡ / 건축면적 27,590㎡
 - * 테스트베드: (부지면적) 39,634㎡ / (건축면적) 12,887㎡
 - 배후부지: (부지면적) 65,231㎡ / (건축면적) 14,703㎡
- (주요시설) 테스트 베드, 통합관제센터, 취·배수시설, 배후단지 시설 등
- (추진전략) LNG기지 냉각수 등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양식모델 구축, 바다송어 양식기술 및 PDRN*, 부산물 활용 기술 개발·보급 등
 - * PDRN(Poly Deoxy Ribo Nucleotide): 송어, 연어의 정액 또는 정소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피부재생, 상처 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의료·미용 분야에서 활용

【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전체 조감도】

